

학술출판의 새 活路 뚫는다

강원대학교 출판부를 찾아서

교양교재 발간을 목적으로 각 대학에 출판부가 생긴 것은 지난 70년대 초반의 일이다. 이후 60여개 대학에 출판부가 생기면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서울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기대수준에 못미쳤던 것이 사실. 더욱이 근년들어 학생들이 학사행정에서의 참여를 주장하면서부터 출판부 관계자들 사이에는 '자진폐업'설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부 재정의 최대 水源地인 교양교재 이익금이 학생들의 압력에 의해 장학금으로 용도가 돌려지고 있거나 신입생들에게 강매(?)되던 판매방식이 자유구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손도 안대고 코풀기'라고 여겨졌던 교양교재 출판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있던 대학출판부로서는 위기감이 팽배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대 출판부가 대학출판계의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방대가 가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주변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변모에 성공, 작금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출판부 체질개선의 한 모범

강원대에 출판부가 설립된 것은 78년. 여타의 대학처럼 "대학교육과 학문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줄곧 교양교재 발간에만 주력하다 86년 이광래교수(철학과·44)가 출판부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구태를 벗고 본격적으로 학술도서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학출판부가 자기자리를 찾지 못했던 것은 일단 대학당국의 몰이해에 기인한

부분도 많지만 현재상황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전문도서 간행을 통한 폭넓은 시장개척에 관계자들이 소극적이었던 점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출판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광래교수는 학술도서 출간은 출판부의 재정난을 덜어줌과 더불어 대학당국의 무관심을 각성케 하는 계기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 꾸준한 양서출판이 일궈낸 다양한 독자층의 뇌리에 그 대학의 이미지가 좋게 각인된다는 점을 뒤늦게 발견하기에 그러하다는 설명이다.

강원대 출판부는 이같은 자기진단 아래 시장개척에 있어 상대적으로 손쉬운 인문·사회과학도서출판에 전력을 다해 현재까지 30종의 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새로운 기획으로 처음 출간했던 「현대사상의 대이동」(이광래 외 역)이 「문교부 추천도서」가 된 것을 비롯, 「현대 유럽지성사」(이종흡 외 옮김)가 「오늘의 책」에, 「한국아리랑문학연구」(박민일 지음)는 「출판저널」이 뽑은 80년대의 책'반열에 올라 각층의 공신력 있는 매체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았다.

이런 일련의 고무적인 출판활동이 학생들의 출판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뒤바꿔 점차 신뢰감을 회복, 강원대의 경우에는 교양교재 판매량이 급증하는 '기현상'마저 일어났다고 이교수는 설명하면서 "대학출판부 활성화가 우리 출판의 지나친 상업주의에 쫓겨 작용, 국내학문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서의 출판본연의 임무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학문성고가 외국의 서점가에 '상품'으로 진열되는 경우가 여전히 드문 상황에서



강원대 출판부장 이광래교수.

강원대 출판부가 윤평준교수(한신대)의 「Rationality and social criticism: Habermas Foucault and beyond」를 영어판으로 제작, 수출한 것은 우리 출판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값진 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김용은교수(강원대)의 「La tentation de saint Antoine」는 불란서 문학계에 던지는 '학문적 폭약'이라는 것이 강원대 출판부의 설명이다. 플로베르의 「聖 앙뜨완느의 시련」에 대한 방대한 서지작업인 이 책은 벌써 불란서 문화계가 속히 출간되기를 기다릴 정도여서 학문의 '무역역조'를 시정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시장 개발과 함께 해외시장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강원대 출판부는 이 작업을

체계화 시키기 위해 먼저 미국과 서유럽을 제외한 세계의 유수한 대학출판부와 출판교류협정을 맺었고 그 첫사업으로 내년에 동경대 출판부에서 「한국근대사」를 출간할 계획.

영문판 제작으로 해외시장 개척도

짧은 기간내에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친 강원대 출판부는 앞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시야를 넓혀 시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문성이 높은 분야를 개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먼저 강원대가 속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강원문화총서」를 10권분량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에 대한 문호 개방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합한 필자와 좋은 원고를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예정이다.

강원대 출판부의 시급한 과제를 "지금까지 개인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운용방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교수는 대학출판부 관계자들이 지금까지의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출판시장에 대한 감각을 익혀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금을 양질의 교양교재를 만드는 데 재투자함으로써 대학문화 발전에 능동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권우 기자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90 춘계 언론 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마감 : 2월 24일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2월 26일
수강대상 : 고졸(예정자) 이상, 전문대, 대졸

(代) 812-1715~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삭을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삭을 보배로
케어야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의 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73-3 (인성빌딩 2F)